

■ 특특뉴스

생협 비조합원 이용기회 늘린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비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규모가 전년도 공급액(매출액)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생협법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생협은 상부상조 정신과 소비자 간 협동을 바탕으로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정위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 농가 및 사회 활성화 등의 순기능에도 비조합원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제한으로 생협 발전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비조합원 판매 가능 비율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치솟는 금리에 ‘전·월세 렌트푸어’ 는다

5월 광주 전·월세전환율 6.3%

금리인상 대출이자 부담 가중

월세액 공제 확대 등 대책 절실

영끌,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 모아’ 4년 전 전세집을 구한 정민욱 씨(33·가명)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반전세’로 변경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전세로 계약을 연장하기엔 대출금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면서다. 2억 2,000만 원 정도 했던 보증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나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도 한 몫 했다.

정 씨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 목돈에 대출까지 끌어모아 전셋집을 구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괜히 무리해 전셋집을 구했다, 하는 생각이 앞선다”며 “집주인은 본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해 세를 준 집이라 대출이자 납입과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보증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지만, 본인 명의의 집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사람들로서는 있는 자들의 단순한 푸념 정도로 들리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는 임대차법이 통과됐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지난 2020년 10월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정씨로서는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전국 5.8%, 광주 6.3%로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른 광주지역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올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금리도 6%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미리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은행의 변동형 전세자금대출 금리 최저 연 3.59%, 최고 연 5.67%에 비해 아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음에 따라 세입자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전세 또는 매매보다 월세 거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권 관계자들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아 대출금리도 6%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아파트 등 전체적인 집 값은 하락했으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매매율은 급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매매를 찾는 분들이 늘었는데,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에 근 일주일 새에는 전세보다 월세 또는 반전세 매물을 보여달라는 고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 매물 문의가 늘면서 본래 받았던 가격보다 월세를 높여 받으려는 집주인들도 있다. 매물에 비해 인기가 많아 월세를 올려도 팔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급격히 증가한 수요에 광주지역 평균 월세가 격조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6월 평균 57만 원이던 월세값이 올해 6월 기준 58만 2,000원으로 2.1% 가량 오른 것.

지역 부동산업 관계자는 “중개인들 또한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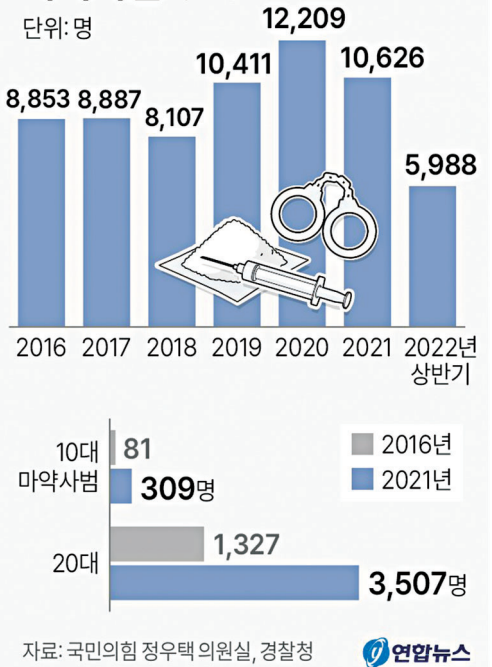
동금리로 전세대출을 강행할 바엔 한 번 계약할 경우 2년 동안 금액이 고정되는 월세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높아진 대출이자에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은 이른바 ‘강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당할까 우려하는 고객들도 많아 월세 또는 반전세 매물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소득을 월세 및 전세대출 이자에서 출하는 ‘렌트푸어’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높아지나 실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곳곳에서 월세 지원 및 월세액 공제 비율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오지현 기자

■ 그래픽 경제

마약사범 추이



최근 3년간 마약사범 매년 1만명대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민의회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8,000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2021년 1만명대로 늘었다.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포럼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국세청 변해정 납세자보호관 주관으로 광주국세청 산하 15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15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올해 소통현황과 우수 소통사례를 발표하고, 집단 토의를 거쳐 관서별 상황에 맞는 소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북광주세무서는 광주 북구청과 세정업무 협

약을 체결해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직원 상호교류와 출장근무 등을 추진했다.

해남세무서는 장흥토요시장과 해남군 가족센터에 현장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북전주세무서는 전북 경제통상진흥원과 2020년 6월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오고 있다.

남원세무서는 관내 장애인 종합복지관 세금

교육과 남원시가 주관하는 민원마켓에 동참,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변해정 납세자보호관은 우수 소통사례를 청취, 개선의견을 공유하고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세무지원 소통의 달’ 등 하반기 소통 활성화와 공감소통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연수 기자

포장지 전문기업 디에스팩(주)

눈에 띄는 디자인 포장지는 곧 매출이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옵셋 인쇄를 통해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동판 인쇄
옵셋인쇄를 통한 동판비 절감

다양한 기성봉투
고민하지 말고 구매하세요

다품종 소량생산
비용, 재고 부담 절감

친환경 잉크
인체에 무해한 EB잉크사용

디에스팩(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로 70 (월전동 1250)
TEL : 062) 942-0000 dsp0011@naver.com

DS팩 QR코드

ECO 우리의 꿈 식품보다 더 깨끗한 포장지

소중한 가족이 먹는 **식품**은 **포장지**부터 달라야 합니다!

▲ 지퍼스텐딩 파우치

▲ 박스파우치

▲ 건수산물 / 농수산물 기성 봉

▲ 농수산물 기성 봉투 (일반형, 숨구멍)

디에스팩의 기술력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제품은 합판하여 인쇄가 가능합니다.

디에스팩에서 **친환경 EB잉크**를 사용하여 동일한 컷 사이즈의 제품을 합판하여 인쇄하므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은 고객님의 재고 관리와 비용 절감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